

고용지표의 결과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

시황 및 전략

■ FOMC 기준금리 동결,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마무리

11월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0~0.25%로 동결. '경제 상황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를 상당기간 보장해줄 것으로 예상'한다는 문구는 변화없이 유지.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낮은 수준의 자원활용도, 억제된 인플레이션, 안정적인 인플레 기대심리' 등을 저금리의 구체적인 배경으로 언급. 이는 인플레이션에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

이번 회의에서 현행 저금리를 상당기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경제가 여전히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을 반영. 이번 FOMC이후 미 국내금리와 유가는 상승, 달러화는 엔화대비는 강세를 보였으나, 유로화 대비는 약세를 기록. 전반적으로 이번 FOMC결과가 금리나 상품가격, 달러에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

■ 전일 시장 흐름 : 거래대금 급감 속에 웨더독(Wag the dog) 현상 심화

주중 30pt가 넘는 반등을 보이면서 120일선 지지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지만, FOMC이후 미 증시의 부진과 거래대금 급감 속에 웨더독(Wag the dog) 현상이 강화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 전일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선물 매도로 장중 4천억원이 넘는 프로그램 매물 출회된 가운데 지수는 재차 120일선(1,530선)지지를 테스트하는 국면으로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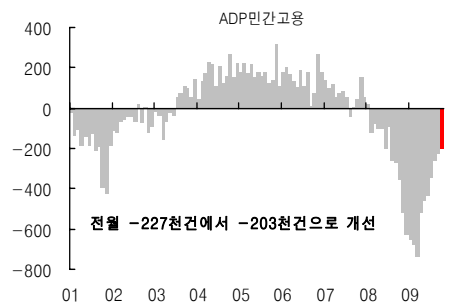
KOSPI200 종목별 흐름에서 최근 모멘텀 감소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확인 가능함. 전일 두산 그룹주(=두산,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가 3분기 실적부진에 따른 급락세를 보인 점, 주초 어닝서프라이즈를 보인 호남석유가 4분기 이후 실적둔화 우려로 추가 하락을 이어간 점 등이 단적인 사례임.

■ 시장 전망 : 결국 고용지표가 120일선 지지여부를 가능할 변수로 작용할 듯

결국 120일선 지지여부는 6일 예정된 미 고용지표의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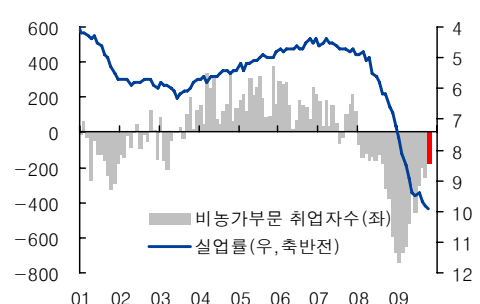
전일 미 증시에서 ADP민간고용이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주 후반 고용지표에서의 긍정적 결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에는 120일선 지지실패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듯. 시장 전반에 걸친 관망심리 확산과 주도주 부재로 공격적인 시장대응은 자제할 필요가 있는 시점.

그림 1> ADP개선이 주월 고용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



자료: Bloomberg

그림 2> 비농가부문...전월 -263천건, 예상치 -175천건



자료: Bloomberg